

# 徐居正의 公州十景 漢詩 考察

## -공주의 융복합적 지역문화 탐색을 중심으로-

김 미 선\*

< 目 次 >

I. 序言	III. 公州十景의 內容 考察
II. 公州十景 創作 背景 및 概觀	IV. 융복합적 지역문화 特徵 및 結語

<국문 초록>

본고는 서거정의 공주십경 한시 내용을 연구 범위로 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주지역의 인문학적 융복합문화를 발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한 지방의 명승, 곧 아름다운 경치를 묶어서 '十景'이라 부르는 전통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경치가 좋다고 해도 단번에 승경으로 '십경'이라 하는 명칭이 붙지는 않는다. 이는 오랜 세월 문화적 평가가 누적되고 사람들이 그 의미에 공감하면서 자연스레 붙여지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서거정의 공주 10경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한 객관정보보다는 작자의 개인적 관점과 주관에 의한 10경을 제정한 점이 그 특징으로 드러났다 하겠다. 이에 서거정의 10경시를 제외하고는 공주의 8경 내지는 10경을 읊은 시를 쉽게 발견할 수 없기에 공주 지역민이 아닌 다수의 대중들이 생각하는 공주의 이미지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하겠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오늘날 공주지역의 백제 문화권 위상을 찾아 볼 수 있는 인문학적 융복합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더욱 긴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 청주대학교 교수 / hawoodang@hanmail.net

이들 10경 가운데는 이제 그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대상이 이미 사라져 없어져 버린 곳도 있다. 비교적 구체적인 10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월명대와 정지사, 계룡산, 금강나루이고 삼강, 오현의 승경은 넓은 범위를 묶어서 말하였다. 이렇게 보면, 왜 공주 10경을 오늘날 공주지역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려운가 하는 이유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다. 서거정이 말한 공주십경은 처음부터 객관성에 기초한 '공주 10경' 보다는 지역민의 공감대와는 거리가 있는 목적의 문학적 작업의 성격이 더 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주에는 많은 승경과 유적이 있어서 이를 자원으로 하는 관광 공주의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5백년 전, 3백년 전의 공주 10경은 소재의 시의성이 이미 상실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공주 10경'이라는 자료는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 있다.

새 공주 10경 콘텐츠의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구체적인 승경이면서도 공주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주 시민들의 공감으로부터 나온 10경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관광 공주의 새로운 소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지역문화의 융복합적 인문학 내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서거정의 공주십경에서 역사, 철학, 환경, 생태, 기후학의 내용을 융복합적으로 고찰 할 수 있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공주십경을 多元的藝術에 대한 태도와 철학적 사고의 결과물들을 인문학 자원으로 계승 공유하여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정신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주제어】** 서거정, 공주십경, 승경, 다원적예술, 지역문화

## I. 序 言

본 고에서는 서거정의 공주십경 한시 내용을 연구 범위로 한다. 공주십경의 선행연구업적<sup>1)</sup>은 활발하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본 논고에서는 공주십경의 한시 내용을 통하여 공주지역의 인문학적 융복합문화에 접근하기

1) 신용호, 「公州 全十景詩」, 『熊津文化』 제1집, 공주향토문화연구회, 1988.

로 하겠다. 팔경 또는 십경이란 명칭은 중국의 瀟湘八景圖<sup>2)</sup>에 지어진 瀟湘八景 題畫詩<sup>2)</sup>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이후 명승을 모아서 읊은 시가 창작 되어졌다. 조선 시대에는 그림을 첨부한 '八景圖'의 제화시가 유행하였다. 팔경을 구성하는 명승의 이름은 지명과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내용을 결합한 것도 있고, 지명만으로 된 것도 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한 지방의 명승을 '景' 또는 '曲'으로 명칭 하였다. 곧 아름다운 경관이 빼어나거나 특색있는 넓은 지역은 勝으로, 지역보다 좁은 장소의 아름다운 경치는 景으로 불렀다. 이에 승경지역을 세분하여 묶어서 '八景'<sup>3)</sup> 또는 '十景'<sup>4)</sup>이라 하여 서거정의 「공주십경」<sup>5)</sup> 작품 이외에도 「밀양십경」·「대구십경」·「한도십영」<sup>6)</sup> 등이 있다. '景'의 경우는 산수에서 '山'에 의미를 더 치중하였다 하겠다. 또한 '무이구곡'·'도산구곡'의 '曲'의 명칭은 변화되는 지형의 산수와 경치를 겸비한 장소에서 '水'의 실경을 위주로 할 적에 더 가까이 붙였음도 검토해 보게 된다. 이에 '景'과 '曲'에는 '樂山樂水'<sup>7)</sup>의 선비관을 통해 세상을 경영하고자 하는 선현들의 경세제민적 처세를 들

- 
- 2) 박해훈, 「조선 초기 소상팔경도에 대한 고찰」, 『온지논총』 34권, 온지학회, 2013.  
노재현, 「전통경관(傳統景觀)의 원형(原型)으로 본 소상팔경(瀟湘八景)의 형식(形式)과 구조(構造)」, 『온지논총』 34권, 온지학회, 2013.  
여기현, 「소상팔경의 수용과 양상」, 『중국문학연구』 25권, 한국중문학회, 2002.  
송희경, 「조선초기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의 시각적 번안과 그 표상적 의미 -강천모설(江天暮雪)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5권, 2006.
- 3) 안장리, 「소상팔경시와 삼척팔경시의 차운 양상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5권, 한국한시학회, 1997.  
강지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온양팔경시(溫陽八景詩)연구」, 『동양문화연구』 19권,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4.
- 4) 김상범, 「영주십경(瀛州十景) 통해 본 제주의 경승관(景勝觀)과 경관체험(景觀體驗)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2권, 2007.  
허희, 김한배, 「중국 항주(杭州) 서호십경(西湖十景)의 변천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권, 한국조경학회, 2013.
- 5) 徐居正, 『四佳集』 卷三, p.7.  
6) 徐居正, 『東文選』 卷四, p.4.  
7) 『論語』 「雍也」.

여다보게 한다.

이러한 景과 曲에는 자연의 시각적인 실경 외에도 관각문인들이 현실 참여적 의지를 산수의 풍경에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사림 문인에겐 자기 수양적 공간이며 방외인에겐 탈속한 도가적 공간의 의미이기도 한 융복합적 문화공간 이었던 것 이다. 이에 서거정의 공주십영 작품 고찰은 이러한 공주지역의 산수 자연이 갖는 우리의 전통문화구조를 계발시키는 계기의 필요성이 되어지리라 여겨진다. 또한 선현들이 그 대상들에 대하여 '인문·문화·역사·환경·생태·기후학'의 多元的藝術에 대한 태도와 철학적 사고의 결과물들을 인문학 자원으로 계승 공유하여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정신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이에 먼저, 서거정의 공주 십경 개관을 하고 본문에서는 서거정의 공주십경을 공주의 융복합적 지역문화 탐색에 근거하여 내용 고찰을 하기로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서거정의 공주십경 작품에서 오늘날 공주지역 융복합문화로서의 지역문화 의미를 자리매김해 보기로 한다.

## II. 公州十景 創作 背景 및 概觀

먼저 徐居正[1420~1488]의 작품 창작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서거정은 세종 2년인 1420년에 태어나서 세종 26년(1444) 甲子年 文科 시험에서 3등으로 급제하여 司宰直長이라는 벼슬을 받은 이후,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1488년까지 조선 전기의 대표적 관료이자 문인이다. 그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선 이래, 일생 동안 여섯 왕을 섬기며 45년 간 정치가이자 관각문인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는 23년 간 文衡을 담당하면서, 23차에 걸쳐 과거 시험을 관장하여 많은 인재를 뽑았다. 이와같이 격심한 정치적·문학적 활동은 신체적·정신적 과로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의 관료는 평상시에는 卯時(오전 5시~7시)에 출근하여 酉時(오후 5시~7시)에 퇴근하

되 해가 짧을 때에는 辰時(오전 7시~9시)에 출근하고 申時(오후 3시~5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관원은 하루에 길게는 12시간, 짧게는 8시간 일하도록 되어 있었다. 세종 13년의 기록에 의하면, 관원이 무단으로 지각을 하거나 조퇴할 경우에는 50대의 태형에 처하겠다고 한다. 서거정의 관직 생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던 것이다. 서거정은 이 같은 정사 여건 속에 격무로 인하여 각종 질환을 앓았다고 한다. 그가 앓았던 주요 질환은 消渴病과 頭風이었다. 그리고 足疾을 앓았고 비위가 손상되었다고도 한다. 거기다 방대한 저작활동<sup>8)</sup>으로 그가 당대에 미친 문학적 영향도 또한 막대하였다. 왕조의 기반을 다지고 정치 제도를 확립하고 문화적 정비 사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장기간 주요 역할을 하였던 서거정에게는 명승지의 산수자연을 찾아 유람하며 힐링을 하고자 하는 처세법이었을 것이다. 고단한 업무에 대한 한탄을 다음 작품 「有感」<sup>10)</sup>에서 보면

四十五年經樞臣	45년간 경연에서 신하로 있었고
承乏文衡廿二春	22년간 문형의 임무를 맡았다네
尙把詞章闢年少	아직도 사장으로 젊은이와 싸우니
多慙七十白頭新	일흔의 흰머리가 몹시도 부끄럽네

라고 하였다. 서거정이 69세 때 지은 시이다. 45년간 경연에서 임금을 보필하였고, 과거를 담당하고 국가적 文衡 등을 관장하는 대제학을 22년째 맡고 있었다. 일흔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젊은이들과 詞章을 다투고 있다는 현실이 結句에서 신체적 노쇠에 대한 한탄과 부끄러움으로 회한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서거정의 왕성한 정치적·문학적 활동은 신체적·정신적 과로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거정에게 명승지 유람은 二樂之樂으로

8) 『經國大典』.

9) 시문집으로 『四佳集』이 전하며 『歷代年表·東人詩話·太平閑話滑稽傳·筆苑雜記·東人詩文』 등을 저술하였다. 또 『東國通鑑·東國輿地勝覽·東文選·經國大典·聯珠詩格言解』를 공동 찬집하였다.

10) 徐居正, 『四佳集』 卷五十二, p.4.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이에 유람을 하려면 당연히 명승지를 찾게 되고, 승경의 유람에는 詩囊이 따르는 법이다. 서거정이 남긴 많은 제영시 중에서 본고의 연구범위가 되는 '公州十景'은 1456년(문종6년) 서거정이 西原에서 公城을 가는 길 유람하면서 지은 한시로 추정한다. 공주십경시는 작자의 문집인 『四佳集』에 전한다. 작자가 젊어서 공주를 유람하였는데, 이때 집현전 학자 李壘 [1417~1456]를 만나 연회를 베풀 때 시를 수창한 바 있으며, 또 계룡산의 「迦葉菴重新記」를 1452년에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新昌縣拱北亭記」에 따르면 1456년 여름에 西原에서 公城으로 가는 길<sup>11)</sup>이라고 한 것을 보아 이를 근거로 볼 때 공주십경 창작년도는 1456년으로 추정할 수 있을 듯하다. 서거정은 유달리 충청도의 연기·해미·목천·충주를 지나며 흥취를 표현한 작품들이 보이는데<sup>12)</sup> 영남 호남 지역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서거정이 제영한 공주십경의 공간 범위는 한정적이지만 작자의 제영 대상에 대한 心境의 추구는 무한한 경관이 되는 것이다. 이에 공주십경의 다양한 경관요소들에 의하여 그 경관을 확장된 표현으로 기존의 공간 범위 한정을 극복하여 자연 공간과의 무한한 융합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작품의 창작배경임을 이해 할 수 있었다.

공주십경을 구성하는 10수의 소재목은 다음과 같다. ① 錦江春遊 ② 月城秋興 ③ 熊津明月 ④ 鷄嶽閑雲 ⑤ 東樓送客 ⑥ 西寺尋僧 ⑦ 三江漲綠 ⑧ 五峴積翠 ⑨ 金池菡萏 ⑩ 石甕菖蒲 이다. 작품의 내용 유형으로는 공주지역 산수 자연의 빼어난 경치를 노래 한 것이다. 제 1수는 금강의 봄놀이, 제 2수는 월성산의 가을 흥취를, 제 3수는 웅진강(금강)의 밝은 달빛을, 제

11) 徐居正, 『四佳文集』 「茂松尹相國, 語居正曰, '新昌守趙君愉, 構新亭, 扁曰拱北索記, 幸子有一言': 子念丙子夏, 自西原之公城道, 所謂新昌而過之, 太守金同年樸, 送于道。」

12) 徐居正, 『四佳集』 「忠州萬景樓: "萬景高樓插半霄, 登臨佳致儘難消. 巖川綠接金灘去, 鳥嶺青連月岳高. 浩蕩白鷗盟未熟, 夷猶黃鶴賦堪招. 送迎南北何時了, 山自蒼蒼水自遙." 「陰城: "陰城是古縣, 陽谷淨朝暉. 山好屏千幅, 溪明玉一圍. 白鷗兼水靜, 黃鶴與雲飛. 小坐林塘密, 從教翠滴衣."

4수는 계룡산 위에 떠도는 구름을, 제 5수는 금강루에서 손님과 이별하는 마음을, 제 6수는 정지산 절의 승려를 찾아가는 길을, 제 7수는 삼강(삼기강, 금강 상류)에 불어난 푸른 물결을, 제 8수는 공주를 둘러 친 다섯 고개의 경치를, 제 9수는 객관 앞 연지의 연꽃을, 제 10수는 大通寺터에 남아 있는 대형 돌 구유통에 자란 창포를 노래한 내용이다.

다음에서는 이와같은 서거정의 공주십경에 대한 창작배경 및 개관을 바탕으로 볼 때 서거정이 공주십경을 창작하게 된 공주에 대한 그의 인식에 그의 「聚遠樓記」를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취원루는 공주목 客館 동쪽에 있던 옛날의 觀政亭이다. 정자가 연못 가운데 있었는데, 牧使 權體가 정자를 헐고 樓로 만든 것을 그 뒤에 부임한 목사 洪錫이 東軒 동쪽에 옮겨 세운 것이다. 홍석이 樓를 세우고 이름과 기문을 서거정에게 禮賓寺正 金首孫을 통하여 누대의 이름과 기문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聚遠樓記」를 보면,

~前略~

목사가 이제 禮賓寺正 金首孫공을 통하여 나에게 정자의 이름과 기문을 청해 왔다. 나는 말하기를, '이 정자의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먼데 것을 모은 것[聚遠]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하였는데, 이는 멀리 있는 모든 좋은 경치를 이 한 樓로 모아 들였다는 것이다. 누에 올라 바라보면 좌우와 전후에 강과 산이 두루 비치니, 아래 위 수백 리 사이에 저 들관의 광활함이며, 여염집의 즐비함이며, 나루터와 다리에의 다니기 고생하는 모습과, 역원에 드나드는 나그네의 힘든 형편과, 밭가는 자·누에 치는 자·나무하는 자·소 말 먹이는 자·고기잡는 어부·물건파는 장수들·사람들이 생활하며 오가는 것들이 한이 없다. 아침에 해뜨고 저녁에 그늘지며 사철이 서로 바뀌는 것과, 雨露 霜雪의 변천이며 草木 花卉가 피고 지는 것이며, 스스로 날고 스스로 울며, 스스로 모양을 이루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것 등 형기 속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데 이르러서는 그 氣象이 각기 일정치 않음을 이 누에서 한번 눈을 들어보면 모두 알 수 있다. 아, 어쩌면 멀리서 이 누에 모여드는 것이 이와도 같은가? 올라 구경하는 좋은 경치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으리오.13)

~後略~

13) 徐居正, 『四佳集』 「聚遠樓記」, 卷一, p.20.

라고 하였다. 「聚遠樓記」에 서거정의 공주에 대한 자연관이 잘 드러난 있다. 이 누대에 올라가 보면, 강과 산이 두루 비치고, 이 정자의 좋은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나 먼데 것을 모은 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며 聚遠樓의 顧名思義를 통해 지역공간을 극찬하여 냈다. 그리고는 취원루에서 바라다 보이는 공주지역의 경관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周 나라 召公이 자주 쉬었던 감당나무를 보고 소공을 생각하듯 공주목의 치세가 惠政으로 和樂할 것을 다음과 같이 슬회 하였다.

~前略~

그러나 누각을 세운 것은 다만 놀고 구경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 오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들판을 바라볼 때에는 농사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고, 여염을 바라볼 때에는 백성들의 고통을 알게하며, 나루터와 다리를 바라볼 때에는 어찌하면 내를 잘 건너게 할 수 있을까 하며, 나그네를 바라볼 때에는 어찌하면 우리의 길에 나오기를 원하게 할까 하며, 곤궁한 백성들의 생업이 한 가지가 아님을 볼 때에는 죽는 이를 살려 주고, 추운 자를 따뜻하게 할 것을 생각하게 하며, 산천 초목과 鳥獸魚鱉에게 이르기까지 화락하게 하기를 생각하지 아니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멀리는 物에서 취하여 이 누에 모으고 이 누에 모은 것을 다시 마음에 모아서, 이 마음이 항상 主가 되어 내눈과 귀에 부딪치는 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면 이 누에 이름 붙인 意義에 거의 가까울 것이며,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의 책임에도 또한 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흥후와 평소에 두터운 친분이 있고, 또 내가 앞서 알고 있었던 공주의 흠절을 후가 크게 이루었으니 내 어찌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 후가 일찍이 廣州牧使가 되어서 惠政을 베푼 적이 있어 지금까지도 백성들이 부모같이 사모하니, 후가 광주에서 다스리던 것을 공주에 옮긴다면 공주가 어찌 잘 다스려지지 않겠는가. 후는 곧 임기가 차서 돌아갈 것이나 후는 비록 가더라도 가지 않을 것은 이 누이다. 그러한즉 공주 백성들이 이 누를 생각하기를 옛날 周나라 백성들이 召公이 자주 쉬던 甘棠나무를 보고 소공을 생각할 것을 또 어찌 의심하겠는가. 이것이 기록할 만한 것이다.<sup>14)</sup>

14) 徐居正, 『四佳集』 「聚遠樓記」, 卷一, p.20.

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서거정은 공주목사를 지낸 洪錫과의 친분으로 공주의 취원루 기문을 지었고, 이를 통해 공주의 심경을 창작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또 하나의 일면임을 고찰하였다. 다음은 공주십경의 작품내용 고찰이다.

### Ⅲ. 公州十景의 內容 考察

먼저, 공주십경 제 1경 「錦江春遊」<sup>15)</sup>이다.

濯錦江 <sup>16)</sup> 邊天地春	탁금강 강가는 천지가 온통 봄기운으로
二月三月天氣新	이삼월 접어드니 하늘의 기운 새롭구나
玉壺沽酒尋芳菲	옥병에 술 사 들고 꽃다운 봄 찾아가니
遲日暖風惱殺人	긴긴 해 따뜻한 바람 사람 취하게 하네
晴江新漲金葡萄 <sup>17)</sup>	갠 강물 새로 불어 금포도주 넘치는듯
蘭橈隨意移畫舫	목란 노 맘껏 저어 그림 배를 옮겨보네
杏花疎景簪斜歸	살구꽃 성긴 그림자에 만취해 돌아가니
玉笛一聲山月高	옥젓대 한 자락에 산 달만 높이 떴구나

공주지역이 錦江 자락에 의해 에워싸여 있는 형국을 “물이 龍潭·茂朱 두 고을에서 발원하는데 錦山에서 합류하여 永同·沃川·淸州 세 고을을 지나 공주에 이르러서는 錦江이 되고, 꺾여 泗泚江이 되어서는 더욱 큰 물을 이루어 길게 구불구불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웅진이라 한다. 그래서 공주는 계룡산이 鎭山이 되고 웅진이 襟帶가 되니, 그 산천의 아름다움을 알겠도다”<sup>18)</sup>에 드러났듯이 서거정이 공주십경 중 제 1경을 금강에서의 봄 놀이를 詩化하였다. 首聯의 탁금강은 일설에는 성도 浣花溪의 별칭이라고도 한다. 이를 생

15)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補遺」 卷三, p.7.

16) 濯錦江 : 본디 四川省 成都의 부근을 경유하는 岷江의 한 지류로, 일설에는 성도 浣花溪의 별칭이라고도 한다.

17) 李白, 「對酒」 “蒲萄酒金叵羅, 吳姬十五細馬馱. 青黛畫眉紅錦靴, 道字不正嬌唱歌.”

18) 『新增東國輿地勝覽』.

략하여 '금강'이라고도 일컬으므로, 이르 용사하여 공주의 금강을 성도의 금강에 비유한 서거정의 관각문인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지금의 세종시 공주시의 경계가 된다. 금강에 봄기운이 들어 2, 3월이 되니 온통 만물이 소생하는 금강 나룻터에 옥병에 술을 사 들고 가니 따뜻한 바람이 먼저 취하게 한다고 하였다. 崔致遠은 '國有玄妙之道曰風流'<sup>19)</sup>라 하였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풍류인 것이다. 풍류는 현묘한 우리의 본래 道 이다. 맑은 날 금강의 물결은 포도주가 넘치는 듯하니 노를 맘껏 저어 하루를 유람한다. 밤이 되어 꽃 그림자는 낮의 풍경보다도 더 큰 흥취를 준다. 미련의 전구는 꽃 그림자의 시각적, 후구는 玉笛의 청각적 수사법을 써서 공주 금강의 봄날 실경을 가득한 달빛에 부쳐 두었다. 서거정에게는 금강 봄날 생명이 약동하는 흥취에 자신을 반조하는 餘暇가 드러나 보인다. 다음은 공주십경 제 2경 「月城秋興」<sup>20)</sup>이다.

秋風嫋嫋江自波	가을바람 선선하게 강 물결 절로 이는데
山南山北紅葉多	월성산 주변은 낙엽 온통 붉게 물들었네
登臨有興濃於酥	산에 오르니 흥취 있어 술맛보다 진한데
十千 <sup>21)</sup> 美酒金巨羅	십천의 좋은 술 황금 잔에 따라 마시네
黃花滿插帽欲欹	국화꽃을 가득 꽂자 모자 기울려고 하니
鯨吞 <sup>22)</sup> 虹吐 <sup>23)</sup> 安足辭	고래처럼 마시고 글 포함 어찌 사양하라?
請君莫學宋生酸	청컨대 그댄 송옥의 슬픔 배우지 말라니
一生枉作悲秋詞 <sup>24)</sup>	일생동안 그릇되이 비추사만을 지었다네

19) 金富軾, 『三國史記』, 「鸞郎碑序」.

20)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補遺」卷三, p.7.

21) 『王右丞集』卷14, 十千: 萬錢의 돈을 가리킨 것으로, 王維의 「少年行」 "新豐美酒斗十千, 咸陽游俠多少年."

22) 杜甫, 「飲中八仙歌」 "左相日興費萬錢, 飲如長鯨吸百川."

23) 『杜少陵詩集』, 卷2 "무지개를 토한다는 것은, 흔히 담소를 나누면서 강개한 기개를 떨치거나 훌륭한 문장을 지어 내는 것"을 형용하는 말.

24) 『文選』, 卷33, 「九辯」 "悲哉 秋之爲氣也, 蕭瑟兮 草木搖落而變衰. 慄慄兮 若在遠行. 登山臨水兮 送將歸."

월성은 일명 봉화대로 공주 시가지 중심부에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다. 두리봉 일명 망월산 주미산과 함께 공주시를 커다란 배의 형상으로 둘러싸고 있다. 월성산 정상부에는 조선시대에 서울과 남부지역을 연락하던 봉수대가 있어서 지역민들은 ‘봉화대’로 부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축조한 이 봉수대는 공주지역에 남아 있는 3개(월성산 봉수·고등산 봉수·쌍령 봉수)의 봉수대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것으로, 전라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봉화를 받아서 정안면 고등산 봉수로 연결했으며, 삼남지방에서 서울로 통신하던 중요한 곳이었다. 이 봉수에 대해서 ‘월성산 봉수는 남쪽으로 노성의 노성산 봉수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고등산 봉수와 이어진다’<sup>25)</sup>고 하였다.

서거정은 가을날의 공주 유람에서 월성산을 제영 하였다. 산에 오르는 흥취는 술맛보다 진하고 十千의 술을 마시며 국화꽃을 머리에 꽂자니 모자가 기울려 한다. 고래처럼 술 마시고 담소를 나누면서 강개한 기개를 떨치는 흥취를 사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월성산에서의 秋興을 보고는 초나라 송옥의 「悲秋詞」는 배우지 말라고 한다. 서거정은 월성산 가을국화에서 지조 절개를 관조하며 회왕으로 부터 쫓겨난 굴원을 애도하는 송옥의 슬픔하고는 다른 정취를 읊고 있다. 공주십경 2경에서는 월성산 가을 흥취에서 서거정은 군신간의 질서 신의를 용사를 통해 重意的으로 음영하였다. 다음은 공주십경 제 3경 「熊津<sup>26)</sup>明月」<sup>27)</sup>이다.

25) 『新增東國輿地勝覽』.

26) 熊州 : 본래 百濟의 熊川으로 文周王이 北漢山城에서 이곳으로 옮겨 도읍하였다가 聖王에 이르러 南扶餘로 옮겼다. 唐 나라 高宗이 蘇定方을 보내어 新羅 김유신과 백제를 공격하여 멸하고는, 웅진도독부를 두어 군병을 주둔시켰는데, 당 나라 군사가 철수하자 신라가 그 땅을 모두 점유하였다. 신문왕이 웅천주로 고쳐 도독을 두었고, 경덕왕(景德王)이 웅주(熊州)로 고쳤고, 고려 태조 23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成宗 2년에 牧을 두었으며, 14년에 節度使를 두어 安節軍이라 하고 河南道에 속하게 하였다. 顯宗 3년에 절도사를 폐하였고, 9년에 知州事로 강등되었고, 忠惠王의 後 2년에 元 나라의 平章 關關赤의 아내가 된 敬和翁主의 외향이라 하여 牧으로 승격시켰고, 본조에서는 그대로 따르다가 世祖 때에 鎭을 두었다.

27)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補遺」 卷三, p.7.

熊津之水清且漪	웅진의 물 맑으며 또 잔잔히 일렁이는데
熊津有月來何時	웅진에 밝은 달이 어느 때쯤 떠오를까?
百濟往事如鳥過	백제 지나간 일 새가 지나간 것 같으나
我問明月月應知	내 밝은 달에 물으면 달은 응당 알리라
一自樓船駕海來	당나라 누선이 바다를 한번 건너온 뒤로
國社已墟唐府開 <sup>28)</sup>	사직은 이미 폐허가 되어 도독부 열렸네
落花巖前春正愁	낙화암 앞의 봄날은 정히 근심스러운데
釣龍臺 <sup>29)</sup> 下潮自回	조룡대 아래 조수만 절로 돌아오는구나

서거정은 3경에서 공주가 마지막 수도는 아니지만 백제가 망한 내력을 회고 술회 하였다. 시의 전반부에서 웅진의 물은 맑으며 또한 유유히듯이 천하를 비추어 내는 달도 곧 떠오르기를 웅진 나루에서 기다리고 있다. 백제의 멸망한 도읍은 날아간 새처럼 자취도 없이 스쳐 지난 듯 흘러버렸지만 밝은 달은 역사를 그대로 실증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유한한 인간의 삶과 무한한 자연의 이치를 대비하여 시화하였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唐高宗이 장군 소정방을 보내어 신라의 김유신과 함께 백제를 쳐서 멸하고 웅진도독부를 두어 군병을 주둔시킨 역사를 술회하였다. 낙화암 아래 지는 꽃이 작자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달래며 조룡대 아래 조수만이 제냥 파도 소리를 내고 있는 웅진의 밝은 달을 통해 지난 역사를 술회할 수 있는 경물이자 승지로 인식한 공주 3경이다. 다음은 공주십경의 제 4경 「鷄嶽閑雲」<sup>30)</sup>이다.

鷄嶽峯巒插層碧	계룡산 높아 층층이 푸르게 꽃은 듯 한대
淑氣蜿蜒自長白	맑은 기운 꿈틀꿈틀 장백산부터 달려왔네
山有湫兮龍則蟠	산에 깊은 못 있어서 용이 서리에 있겠고
山有雲兮物可澤	산에 구름이 일어 만물 가히 은택 입으리

28) 唐府는 곧 당나라의 都督府를 말한다. 唐高宗이 장군 蘇定方을 보내어 신라의 金庾信과 함께 백제를 쳐서 멸하고 熊津都督府를 두어 군병을 주둔시켰던 데서 온 말이다.

29) 釣龍臺: 羅唐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용의 조화로 구름과 안개가 끼어 방향을 구분할 수 없자 미끼로 유인하여 용을 낚아 올렸다는 곳으로 부여 白馬江에 있다.

30)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補遺」 卷三, p.7.

我昔試遊於其中 <sup>31)</sup>	내 예전 시험 삼아 그 산에서 노닐었는데
靈異不與他山同	신령함과 특이함이 이 다른 산 같지 않네
會作霖雨澤天下	마침내 장맛비 내려 천하에 은택 주리니
龍使雲兮雲從龍	용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용을 따르리라

4경에서는 계룡산의 명승을 공주의 승경으로 시화했다. 서거정은 작품의 전반부에서 계룡산의 실경의 위용을 드러내었다. 마치 층층이 푸른 벽을 꽃아 놓은 듯하고 꿈틀거리는 기운은 장백산으로부터 달려온 것이다. 계룡산엔 깊은 못이 있어 용이 서려 있을 영기에 그 용이 구름을 일으키면 만물에 은택을 입혀 줄 것이라 하였으니, 우뚝한 산과 한가히 흐르는 구름의 動과 靜의 시적 수사로 승경을 묘사하였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서거정은 이미 예전에 계룡산을 유람하였음을 밝히며 신령스러움과 특이함이 다른 산과 같지 않았고 계룡산의 구름이 비를 내린다면 장마비처럼 산 속의 용이 구름을 부릴 것이고 구름은 그 용을 따르리니 천하를 은택케 할 명승지임을 시화하였다. 다음은 공주십경의 제 5경 「東樓送客」<sup>32)</sup>이다.

錦江江上錦江樓	금강이 흐르는 강가에 금강루가 있는데
黃鶴一去 <sup>33)</sup> 雲悠悠	황학이 한번 가고 난뒤 구름만 유유히네
宦遊南北知幾人	남북으로 벼슬살이한 사람 몇인지 알까?
芳草別恨何年休	방초에 이별하는 한 어느 해 그쳐질까?
去年相別髮如漆	지난해 이별 땀 머리가 옷처럼 검더니만
今年相別白於雪	금년에 이별 땀 눈빛보다 희어져 있다네
江流別恨誰淺深	흐르는 강과 이별 한이 누가 더 깊을까?
一曲陽關 <sup>34)</sup> 愁斷絕	한 곡조 양관곡에 시름이 끊기고 끊기네

31) 徐居正, 『四佳集』, 「聚遠樓記」 “居正이 젊었을 때 공주에 와 놀면서 錦江樓에 올라 보니, 그 眺望의 풍부함이 과연 전에 들던 바와 같았다.”

32)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補遺」 卷三, p.8.

33) 『唐詩三百首』, 崔顥 「黃鶴樓」 “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 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鸚鵡洲.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

34) 『唐詩三百首』, 王維, 「送元二使安西」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進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오경에서는 금강루에서 손님과 이별을 하며 쓴 작품이다. 마치 당나라 시인 崔顥의 「황학루」를 보는 듯하다. 명승의 강나루엔 누대가 있고 그 누대는 이별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서거정은 금강루에서 황학루의 기상을 그대로 용사하며 공주의 절경을 유람하고 있다. 자신의 벼슬살이를 돌아보며 임지를 옮겨 이 금강루를 건너다닌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이며, 금강의 산수 방초와 이별을 하는 일들이 언제나 그쳐질까? 하였으니, 서거정은 공주의 승경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회한을 실어 표현을 하였다. 오늘도 금강루에서 이별을 하자니 금강의 산수는 그대로 인데 그대의 옷칠처럼 검던 머리가 눈처럼 희어진 것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하며 흐르는 금강물과 우리의 이별의 한과 무엇이 더 깊고 알을까? 하였다. 王維의 대표적인 이별시 「送元二使安西」에서 노래한 양관곡 한자락만 들어도 시름이 끊기고 끊긴다고 하여 陽關三疊을 부르는 심정으로 공주의 금강루를 시화하였다. 다음은 공주십경에서 제 6경 「西寺尋僧」<sup>35)</sup>이다.

艇止山 <sup>36)</sup> 中古招提	정지산 산중에 있는 옛 절을 찾아가자니
緣江一路高復低	강 따라 나 있는 길 높았다 낮았다 하네
十載尋僧閑往來	십년을 스님 찾아 한가히 왕래를 하면서

35)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補遺」卷三, p.8.

36)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7권』 「忠清道」 「沙工巖은 주 남쪽 3리에 있다. 세간에서 이르기, “고을의 형세가 물 위에 가는 배와 같기 때문에 舟尾·艇止·沙工으로 이름 붙인 것이다.”

공주시 금성동 정지산의 구릉지대에 자리잡은 유적으로 1996년 국립공주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 국가적 차원의 제의시설로 추정된다. 유적지 내에서는 국가의 중요시설에만 사용된 8잎의 연꽃잎이 새겨진 수막새가 발견되었고, 이외에 화려한 장식의 부착된 장고형 그릇받침 등 국가 제사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적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무령왕과 왕비의 매장지에 기록된 申地, 西地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왕비의 시신이 사후 무령왕릉에 안치되기까지 2~3여 년간 수습되어 보관된 곳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초석이 없는 건물로 제작되어 영구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과 유적지 내의 대벽건물지에서는 얼음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青藤白幟雙草鞋	청등 지팡이 흰 버선 한 켤레 짚신였네
我亦平生支許 <sup>37)</sup> 徒	나도 또한 평생토록 지허의 무리인지라
結社有約何曾辜	결사할 약속을 어찌 일찍이 허물 하랴?
欲倩龍眠老居士	내 장차 용면 노거사 솜씨를 빌려서라도
畫出虎溪三笑圖 <sup>38)</sup>	호계의 삼소도라도 그려 내고자 하리라

공주십경의 6경은 정지산에 있는 스님을 찾아가며 쓴 작품이다. 정지산은 현재 공주의 금성동에 있는 산이다. 고을의 형세가 물 위에 가는 배와 같기 때문에 舟尾·艇止·沙工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제목에서 西寺라고 하여 혹시 西血寺인가 하였지만 본문의 내용과 서혈사의 위치와는 맞지 않는다. 아마도 작자가 금강의 서쪽에 있는 절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보아진다. 작품의 수련에서 정지산에 절이 있다 하였으니, 정지산에 있는 정지사를 제영한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작품의 수련에서 스님을 찾아가긴 금강의 강가를 걷고 있다. 십년이 넘도록 정지사의 스님과 친분이 있는 것이다. 공주십경 창작 연대를 「新昌縣誌拱北亭記」에 따르면 서거정이 벼슬에 나간 10여년이 가까운 세월이 된다. 서거정은 그간 벼슬을 하는 10여년 동안 정지사의 스님을 찾아 왕래 하였던 것이다. 정지사를 찾아오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자니 마치 청등 지팡이 하나와 흰 버선 한 켤레와 짚신뿐이니, 支許의 무리와 다르게 무엇이 있겠는가 하였다. 지허는 진나라 때의 고승 支遁과 高士 許詢을 병칭하는 것으로 이 두 사람이 친구를 맺어 불경과 玄理를 서로 담론하면서 매우 좋게 지냈던 데서 전하여 승려와 문사 간에 교의가 깊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서거정은 자신을 허순에 비유하고 정지사의 스님을 지둔에 비유할 정도를 유불을 넘나드는 교유를 하였던 것이다. 내가 이미 지허의 무리 같은데 結社 약속을 어찌 허물겠는가? 하였다. 이것은 호계삼소의 고사를 용사한 것이다. 진나라때 유가의 도연명 도가의 육수정 불가의 혜원법사가 교분이 두터웠다. 혜원

37) 支許 :晉나라 때의 高僧 支遁과 高士 許詢의 병칭.

38) 虎溪三笑 :도연명 육수정 혜원법사에 얽힌 고사.

법사가 虎溪 안으로 들어가 결사를 하고는 다시는 호계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였는데 반가운 벗 육수정과 도연명이 찾아와 담소하다가 문득 스스로 만든 경계를 넘어섰을 때 호랑이가 으르렁 거리며 알려주는 바람에 세 사람이 호계에서 박장대소 하며 호계를 넘지 않겠다는 선사의 결사를 파계하였다. 결사는 수행을 목적으로 한 僧俗의 모임을 뜻한다. 東晉 때 廬山 東林寺에서 高僧 慧遠法師가 陶淵明 陸修靜 등을 초청하여 승속이 함께 염불 수행할 목적으로 白蓮社를 결성하고 서로 왕래하며 지낸 고사이다. 서거정은 내 어찌 지허의 무리로 그대의 결사 수행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호계삼소와 지허를 용사하며 작품을 쓴 서거정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벼슬살이의 어려운 마음 세속에서 훌연히 벗어나고 싶을 때 금강을 건너 서쪽에 있는 사찰의 스님을 찾아 마음을 쉬었을 것이다. 龍眠老居士의 손을 빌려서라도 호계의 三笑圖를 그려 내리라고 하였다. 공주의 명승 사찰을 실경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다음은 공주 십경의 제 7경인 「三江漲綠」<sup>39)</sup>이다.

三江 <sup>40)</sup> 元從銀河來	세 강물은 원래 은하로부터 흘러 내려와
合爲錦水靑於苔	합쳐져 금강이 되어서는 이끼보다 푸르네
昨夜小雨漲半篙	어젯밤 가랑비 상앗대 반쯤 물 불어나서
蒲萄之酒初發醅	포도주가 처음 막 익어가는 빛깔 같았네
誰家日暮三兩舫	저문날 뉘 집에서인지 두세 척 나룻배를
蘭槳載破桃花浪	목란 샷대로 복사꽃 물결 헤쳐 가는구나
蓑衣蓊笠玄眞子 <sup>41)</sup>	도롱이 입고 샷갓 쓴 이가 현진자이려니
我歌滄浪 <sup>42)</sup> 欲相訪	나도 창랑곡 노래하며 그를 찾아 가려네

공주지역의 赤登江, 錦江, 白馬江의 삼강이 합수 된 지역의 넘실거리는

39)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補遺」卷三, p.8.

40) 三江 : 赤登江, 錦江, 白馬江.

41) 현진자: 당나라 張志和의 自號.

42) 『古文眞寶』, 屈原, 「漁父辭」.

물결을 바라보고 쓴 작품이다. 어젯밤에 비가 내려 상앗대 반쯤으로 물이 불어 나서 마치 포도주가 막익어가는 빛깔같은 진경이다. 날이 저물고 나니 누구의 집에서 인가 삼강에 배를 띄워 도룡이 입고 샷갓쓰고 복사꽃을 헤쳐가는 모습이 마치 현진자를 찾아 나서는 것 같다. 당현종 때 하지장이 벼슬에서 물러나 향촌에 은거한 뒤에, 현종이 조서를 내려 그에게 會稽의 鏡湖와 剡川 한 굽이를 하사하여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하였다.<sup>43)</sup> 마치 현진자가 사는 경호와 섬천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 서거정은 도룡이 입고 현진자를 찾아가는 듯한 삼강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창랑곡 부르며 현진자를 찾아보겠다고 술회하였다. 굴원이나 하지장 같은 고결한 성품을 흠모하고자 하는 서거정의 선비관이 투영된 작품이라 하겠다. 다음은 제 8경인 「五峴<sup>44)</sup>翠<sup>45)</sup>」이다.

公城之勝天下甲	공주성의 뛰어난 경치는 천하제일이어서
五峴嵯峨鎮四角	다섯 봉우리 솟아서 사방의 진산 되었네
遙看積翠連空濛	멀리 보니 질푸름이 아득히 허공 이었고
松檜森森聳霄壑	소나무 전나무는 뻑뻑이 하늘로 솟았네
人間幾番換炎涼	인간은 몇 번이나 더위 추위 바뀌었던가?
四時不老唯蒼顏	사계절 늙지 않고 오직 푸른 얼굴이구나
我欲山中斷黃精 <sup>46)</sup>	난 산중에 들어가 황정을 캐먹고자 하니
鸞笙鶴駕閑往還 <sup>47)</sup>	학 타고 난생 불며 한가로이 왕래하련다

8경 「五峴積翠」이다. 오현은 車峴·板峴·馬峴·火峴·狄餘峴으로 금강의 뛰어난 경치를 자랑 할 만한 곳이다. 오현은 사방의 진산이 되어 소나무 잣나무 들이 뻑뻑이 둘러쳐 있다. 인간의 생애는 생노병사를 겪고 있

43) 『新唐書』卷196 「賀知章列傳·張志和列傳」.

44) 五峴：車峴·板峴·馬峴·火峴·狄餘峴.

45)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補遺」卷三, p.8.

46) 黃精：仙家에서 복용하는 약초.

47) 『李太白集』卷一, 「古風」 “太華峯頭玉井蓮, 開花十丈藕如船. 冷比雪霜甘比蜜, 一片入口沈痾痊.”

는데 어찌하여 오현의 잣나무 소나무는 오직 푸르른 얼굴을 하고 있던 말인가? 선가의 명약이라는 황정을 캐어 먹고서라도 송백의 늘 변함없는 지조를 닮아 지키고 싶은 자기반성의 다짐으로 보여진다. 마치 이백의 「古風」에서 선인이 선경에 학을 타고 다니듯 ‘학의 등에 올라탄 한 선객이, 날고 날아 하늘을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소리 높이 외치어, 내가 바로 안기생이라고 하네. 좌우에는 백옥 같은 동자가 있어, 나란히 자란생을 붙여 대누나의 작품 속에 들어가 신선의 흥취를 공주 오현에서 가히 그 기상을 숭회하였다. 다음은 공주십경의 제 9경 「金池菌菴」<sup>48)</sup>이다.

天孫 <sup>49)</sup> 爲織雲錦機	직녀가 운금 베틀서 고운 비단 짜 내어
綠爲裳兮紅爲衣	푸른색 치마 하고 붉은색 적삼을 하였네
宜風宜雨又宜月	바람에 비에 좋고 또 달빛에도 마땅하니
輕煙細霧香霏霏	가벼운 연기 가는 안개에 향기 흩날리네
何年移自泰華顛	어느 해 태화산 꼭대기서 옮겨 왔을까?
蜜雪入口沈痾瘥 <sup>50)</sup>	달고 시원해 먹으면 오래된 병도 나으리
雖然才大難爲用	비록 재목이 너무 크면 쓰임이 어렵나니
何用藕大於船	배보다 더 큰 뿌리 어떻게 쓸수 있을까?

공주십경의 9경에서는 금지에서 연꽃을 노래하였다. 공주의 금지에서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고 직녀가 베틀서 짜낸 고운 비단 같다고 했다. 푸른색은 치마로 하고 붉은 색은 적삼을 하였으니, 연잎의 푸르름과 홍련의 모습인 것이다. 연꽃은 군자화로 周敦頤<sup>51)</sup>로부터 예찬하지 않은 시인묵객이 없을 것이다. 연꽃은 비오는 날은 빗소리를 감상하고자 선비들이 가까이 하였고, 바람이 불면 연향천리를 간다고 하였다. 금지에 피어난 연꽃은 먹으면 오래된 병도 낫게 해준다고 한 내용을 한유는 「古意」에서 ‘태화봉

48)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補遺」三, p.8.

49) 천손 : 織女星의 별칭.

50) 주 47) 참조.

51) 『古文眞寶』, 周敦頤, 「愛蓮說」.

꼭대기의 옥정에 자란 연은, 꽃이 피면 열 길이요 뿌리는 배만 한데, 차갑긴 눈서리 같고 달기는 꿀 같아서, 한 조각 입에 넣으면 고질병이 낫는다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배 보다도 더 큰 연근은 과연 어디에 쓸 수 있을까? 하며 금지의 승경을 예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에게는 과유불급의 마음을 검속하는 기상을 찾아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다음은 공주십경의 제 10경 「石甕<sup>52)</sup>菖蒲<sup>53)</sup>」이다.

百濟古物惟石甕	백제의 고물이 오직 이 돌 항아리뿐인데
腹大濶落將底用	배만 크고 편편해 장차 쓰일 곳 있을까?
誰知菖陽 <sup>54)</sup> 天地精	누 알았으랴 천지의 정기를 가진 창양을
開雲斲石此移種	구름 헤쳐 돌 뜯서 캐 여기 옮겨 심었네
根盤九節 <sup>55)</sup> 蛟龍老	뿌린 구절이 서려서 교통 늙은 듯 하여
性通神靈天下少	신령함에 통한 성품이 천하에 드물리라
餌之可以延脩齡	이것 먹으면 긴 수명 연장 할 수 있더니
何用區區拾瑤草	어찌 구구히 요초 주울 필요 있겠는가?

백제의 유물인 돌구유에 심어진 창포의 예찬이다. 돌구유는 백제 성왕 때 세웠다는 대통사 유적지에 남겨져 있는 대형 석조물이다. 서거정은 커다란 돌구유통이 쓰임이 있을까? 하였는데 천기의 정기를 가진 창포가 심겨진 쓰임을 관찰하였다. 창양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져서 장수를 누리게 된다고 한다. 또한 옛날에 단오절이면 창포탕으로 머리를 감고 창포창포주를 마시어 癘疫 등 상서롭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였다. 돌구유에 심겨진 창포에는 한 치마다 아홉 개 이상의 마디가 있는데 마치 교통이 서린 듯 하다고 하였다. 『포박자』에 ‘창포는 반드시 돌 위에서 난 것으로, 한 치마다 아홉 마디 이상인 데다 자춘뿔 꽃이 핀 것이 더욱 좋다.’

52) 돌구유 통(백제 성왕 때 세웠다는 대통사 유적지에 남겨져 있는 대형 석조로서 크기는 가로 1.85m, 세로 1.1m에 달함).

53)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補遺」 卷三, p.8.

54) 창양 : 약재.

55) 『抱朴子』 「仙藥」 “菖蒲生須得石上, 一寸九節已上, 紫花者尤善也.”

라고 하였으니, 서거정은 돌구유가 쓰임이 없을 것 같지만 창포를 심기에 아주 적합하듯 공주의 不器한 그릇이 백제의 유물로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 낼 영험으로 읽어진다.

이상과 같이 공주십경의 작품 내용을 고찰하였다. 서거정의 공주십경 작품을 통하여 공주지역의 산수 자연이 갖는 인문·문화·역사·환경·생태·기후학의 多元的藝術에 대한 서거정의 시적 접근 및 그의 철학적 사고의 결과물들을 통해 공주의 지역문화 탐색에 접근 할 수 있었다.

#### IV. 융복합적 지역문화 特徵 및 結語

이상과 같이 서거정의 공주십경 한시 내용을 연구 범위로 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주지역의 인문학적 융복합문화의 특징을 발견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한 지방의 명승, 곧 아름다운 경치를 묶어서 '十景'이라 부르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러한 관념으로 서거정의 공주십경 작품이 창작된 배경을 고찰할 수 있었다.

서거정의 공주 10경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한 객관성보다는 작자의 개인적 관점과 주관에 의한 10경을 제영한 점이 그 특징으로 드러났다 하겠다. 오늘날의 공주 10경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 본다면 2015년에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 되었다.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3개 지역에 분포된 8개 고고학 유적지 중에 공주지역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이 여기에 속하여 백제의 위상을 세계 속에 떨치게 되었다. 현재 공주북캠프에서 공주의 멋진 관광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국립공주박물관, 공주한옥마을, 공산성, 마곡사, 동학사, 갑사, 유구천, 석장리 박물관, 송산리 고분군(무령왕릉), 금강신관공원, 금학생태공원, 우금치전적지,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칠갑산, 계룡산, 태화산 등을 소개하고 있다.

2012년에는 공주10경 선정위원회에서 공주의 새로운 볼거리인 '공주10

경' 새롭게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공주10경 선발 후보지는 15개소로 갑사, 계룡산, 고마나루(연미산), 공산성, 금강, 동혈사, 마곡사, 무령왕릉, 석장리 풍경, 금학생태공원, 우금티, 유마십경(상원골), 창벽, 통천포, 화암정이다. 일리 바탕으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롭게 제정한 공주의 10경 소재목은 다음과 같다. ①갑사 ②계룡산 ③고마나루 ④공산성 ⑤금강 ⑥금학생태공원 ⑦마곡사 ⑧송산리고분군 ⑨석장리풍경 ⑩창벽이다. 공주 10경을 새롭게 서정한 이유는 현재에는 없어지거나 여건의 변화로 공주를 자랑할 수 있는 경관을 새로이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과 함께 뜻있는 인사들의 제안으로 마련됐다고 한다.<sup>56)</sup>

이에 서거정의 공주십경시는 서거정을 제외하고는 공주의 8경 내지 10경을 읊은 시를 쉽게 발견할 수 없기에 공주 지역민이 아닌 다수의 대중들이 생각하는 공주의 이미지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하겠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오늘날 공주지역의 백제 문화권 위상을 찾아 볼 수 있는 고전 인문학적 융복합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이들 10경 가운데는 이제 그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대상이 이미 사라져 없어져 버린 곳도 있다. 비교적 구체적인 10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월명대와 정지사, 계룡산, 금강나루이고 삼강, 오현의 승경은 넓은 범위를 묶어서 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아 왜 공주 10경을 오늘날 공주지역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려운가 하는 이유를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서거정이 말한 공주십경은 처음부터 객관성에 기초한 '공주 10경' 보다는 지역민의 공감대와는 거리가 있는 목객의 문학작업의 성격이 더 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늘날 공주에는 많은 승경과 유적이 있어서 이를 자원으로 하는 관광공주의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5백년 전, 3백년 전의 공주 10경은 소재의 시의성이 이미 상실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공주 10경이라는 자료는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 있음을 확인 분석 할 수 있었다. 2015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 역사

56) <http://www.gocj.net>

유적을 비롯하여 2012년 공주십경의 새로운 선정지 등이 새로운 인문학적 공주십경에 주목하게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 대상이 구체적인 승경이면서도 공주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주 시민들의 공감으로부터 나온 10경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한다면 관광공주의 새로운 소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지역문화의 융복합적 인문학 내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서거정의 공주십경에서 역사, 철학, 환경, 생태, 기후학의 내용을 고찰하여 공주지역 문화에 융복합적으로 접근 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이에 공주십경시에 남아있는 多元的藝術에 대한 태도와 철학적 사고의 결과물들을 인문학 자원으로 계승 공유하여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현대적 가치에 맞고 사회적 정신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參考 文獻〉

『經國大典』

『王右丞集』

『杜少陵詩集』

『唐詩三百首』

『李太白集』

『新唐書』

『文選』

『唐宋詩全集』

『茶山詩文集』

金富軾, 『三國史記』,

徐居正, 『四佳集』

牧隱, 『牧隱文藁』

金淨, 『冲庵先生集』

成運, 『大谷先生集』

朴文鎬, 『壺山集』

강지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온양팔경시(溫陽八景詩) 연구」, 『동양문화연구』  
19권,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4.

국립공주박물관, 『정지산』, 1999.

김상범, 「영주십경(瀛州十景) 통해 본 제주의 경승관(景勝觀)과 경관체험(景觀體驗) 방  
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2권,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07.

김석태, 「불가 사찰제영시의 문학적 지향」, 『고전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09.

노재현, 「전통경관(傳統景觀)의 원형(原型)으로 본 소상팔경(瀟湘八景)의 형식(形式)과  
구조(構造)」, 『온지논총』 34권, 온지학회, 2013.

박해훈, 「조선 초기 소상팔경도에 대한 고찰」, 『온지논총』 34권, 온지학회, 2013.

송희경, 「조선초기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의 시각적 변안과 그 표상적 의미 -강천모설

(江天暮雪)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5권, 2006.

신용호, 「公州 全十景詩」, 『熊津文化』 제1집, 공주향토문화연구회, 1988.

안장리, 「소상팔경시와 삼척팔경시의 차운 양상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5권, 한국한시학회, 1997.

여기현, 「소상팔경의 수용과 양상」, 『중국문학연구』 25권, 한국중문학회, 2002.

윤근일, 공주 송산리고분 발굴조사 개보, 『문화재』 21, 1988.

이남석, 정지산 유적의 성격에 대한 검토, 『정지산』 1999.

허뢰, 김한배, 「중국 항주(杭州) 서호십경(西湖十景)의 변천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권, 한국조경학회, 2013.

<http://www.gocj.net>

## Abstract

### *A Study on Seo, Geojeong's Gongjusipgyeong Chinese Poems -Centering of Local Convergence Culture Search in Gongju-*

Kim, Mi-seon\*

This study has explored Seo, Geojeong's Chinese poems contents as the study scope. I intended to present after finding liberal arts convergence in Gongju district with this base. Our country has a tradition which calls 'Sipgyeong', beautiful scenery binding, that is to say, a scenic beauty of legion from the ancient times. By the way, whatever good scenery, never call naming 'Sipgyeong' with once beautiful scenery making.

Because long time cultural assessment has accumulated, and people has called the name as sympathizing of meaning naturally. Review of Seo, Geojeong's Gongju Sipgyeong, this is found by author's personal viewpoint and subjectivity rather than local people's sympathizing base objectivity, and by great including of conceptual and obscure idea rather than concrete points. However, in there points nowadays local humanist's convergence data are wonderful contents for practical use. After reviewing the 10 princesses of Seo, Geojeong's, I found that this was based on the writer's personal view and subject rather than the objectivity based on the local people's consensus, and that it contained many conceptual and vague concepts rather than concrete ones.

In Gongju, there are so many beautiful sceneries and sites. It is demanding that tourism Gongju management by these sources. 500 years ago, 300 years ago, Gongju 10 sceneries, in fact, their timely of subject matter has already lost, but 'Gongju 10 sceneries' data are still remaining beautiful.

After reviewing the 10 princesses of Seo, Geojeong's, I found that this was based on the writer's personal view and subject rather than the objectivity based on the local people's consensus, and that it contained many conceptual and vague concepts rather

---

\* Professor of Cheongju University / hawoodang@hanmail.net

than concrete ones. Through this process,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for tourism princesses will be carried out and effective use of the contents of the integrated humanities of local culture will be possible.

Seo, Geojeong's Gongjusipgyeong could be examined convergence contents such as history, philosophy, environment, ecology, and climatology. Multiple arts attitude and results of philosophical thought can succeed and share as the humanities sources. I think, this can be practically used as a wonderful asset which can heal social spiritual health demanding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nowadays.

**【Key words】** Seo Geojeong's, Gongju, Gongjusipgyeong, history, philosophy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12월 03일, 게재확정일 : 12월 17일
---